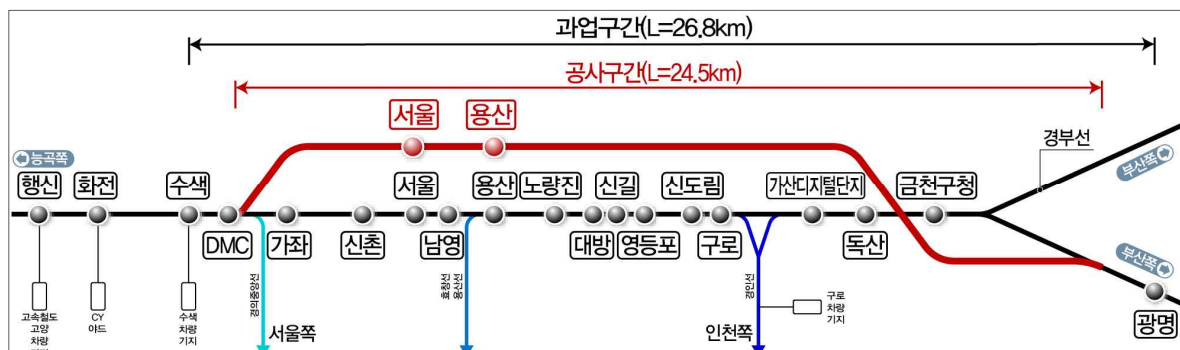


보도시점 : 2026. 8. 18.(화) 11:00 이후(8. 19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8. 18.(화)

서울·용산 KTX, 더 빨리 더 자주 달린다

- 국토부, 수색~광명 고속전용선 건설 기본계획 19일 고시... 사업 본격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운덕)는 수색에서 광명까지 24.5km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8월 19일 확정·고시한다.
 -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조 2,330억원을 투입하여 수색~서울~용산~광명 구간에 지하 고속전용 지름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, 203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.
- 현재, 서울~광명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, 전동차, 화물열차가 선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, 운행시간 단축과 열차증편에 제약이 있다.
 - 본 사업을 통해 고속전용선을 개통하면,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 경로가 분리되어 열차 간섭이 줄고, 운행시간과 정시성이 개선될 전망이다.
 - * KTX 운행시간 단축 예상 : 행신~광명 약 17분 30초 / 서울~광명 약 9분 15초
 - 또한, 고속운행 선로용량도 대폭 확충되어 고속열차 증편과 운행간격 단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 - * 고속선로용량 238회로 확충 / KTX 운행계획: 현재 하루 147회 → 장래 183회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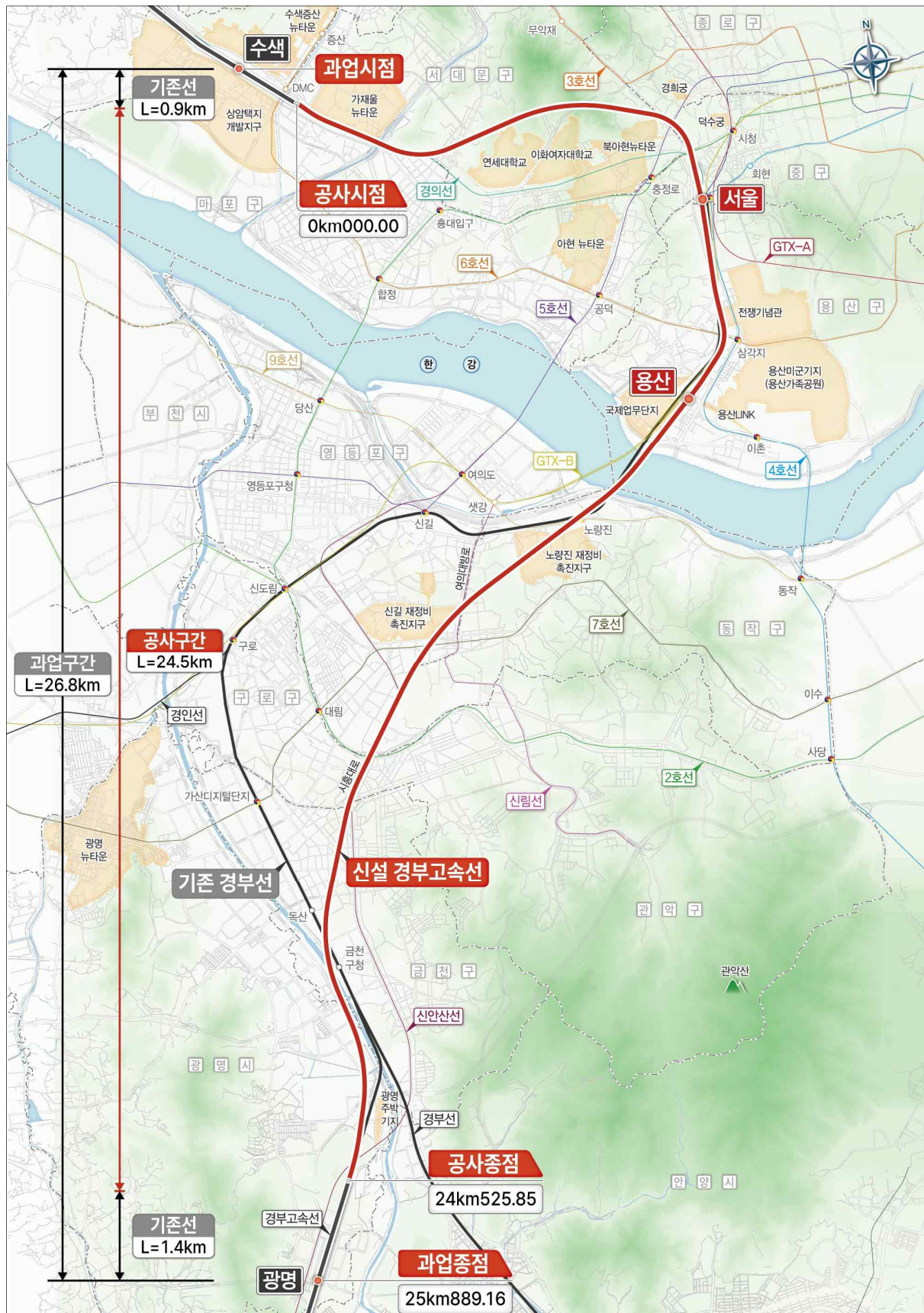


-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“수색~광명 고속철도 전용선이 건설되면 서울과 용산에서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더 빠르고 자주 운행할 수 있게 된다”고 하면서, “평택~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	(044-201-359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태	(044-201-3961)
			주무관	유경아	(044-201-3954)
			주무관	신동화	(044-201-3955)
유관기관	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사업기획처	담당자	부장	차지희	(042-607-4922)
			차장	엄호섭	(042-607-4923)

참고

수색~광명 고속철도 기본계획 노선



※ 세부 노선 위치는 향후 설계단계(26년下~)에서 인근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예정